

정론의 정성으로 행복한 소식을 전해주길

주간불교 창간 3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열악한 교계의 언론환경 속에서도 정론을 기치로 불법홍포와 불교발전을 위해 노력해주신 주간불교 가족의 30년 공덕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부처님은 모든 행복과 불행을 내 마음이 만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행복과 불행이 외부로부터 온다고 쉽게 여기니, 삶은 여전히 갈등과 다툼에서 맴돌고 있습니다.

남을 원망하고 탓하기보다는 내 안을 돌아보며 용서하고 사랑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마음의 평화를 얻는 길이고 또한 우리 모두가 행복해지는 길입니다. 이러한 뜻에서 앞으로도 내 안에서 만들어가는 불자들의 행복한 소식을 한껏 전해주길 바라며, 30년의 선업을 잘 계승하여 더욱 생동하고 활발한 정론을 펼쳐나가기를 기대합니다.

언제나처럼 독자의 마음에 오랜간 담아두겠다는 정론의 정성으로 미래를 밝히고, 행복과 희망을 주는 언론사로 거듭 발전하기를 기원합니다. 주간불교의 모든 가족들의 건강과 행복을 축원합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 승 합장